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11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31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69.30원 (-26.20원)

KOSPI

5,532.59 (+280.72, +5.35%)

KOSDAQ

1,137.68 (+35.40, +3.21%)

국고채 10년 금리

3.629 (-0.11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박승진]
해외 크레딧	KP: 3월, 시장 기능과 후행 프리미엄을 봐야 할 때 [하형민]
실전 퀀트	반도체와 코스닥의 퀀트 전략 [이경수]

기업분석

아이에스동서	최소 시총 1.5조원을 기대하는 종목 [김승준]
JYP	스트레이키즈 Everywhere [이기훈]
엔씨소프트	JustPlay 인수, 하반기 캐주얼 추가 딜 기대 [이준호]

산업분석

2차전지	유럽 IAA(산업가속화법)의 함의와 한국 수혜 강도 [김현수]

글로벌리서치

미국 건설	7년 매각 조항을 포함한 상원 주택법안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S-Oil, 키움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알지노믹스, 씨엠티엑스, 덕산하이메탈

하나증권

2026년 3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3/10)

- KoAct 코스닥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

코스닥 액티브 ETF: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하여 코스닥 상장 종목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표지수 액티브 ETF 카테고리가 되겠다. 상관계수 0.7의 조건을 반영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 종목이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급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영역에 투자한다.

코스닥150 지수가 아닌 1800여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투자전략과 종목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있다. 그만큼 액티브 운용 성과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 당국의 개정안을 통해 상관계수의 제한 없이 완전 액티브 운용 형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는 기업 구성에 따른 수익률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

- KoAct 코스닥액티브: 반도체 소부장,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2차전지 등 주요 성장 섹터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스팩트럼의 종목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상장일(3/10)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큐리언트와 성호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로노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바이오와 로봇 섹터 기업들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파두와 에이치브이엠, 인텔리안테크 등을 통해서는 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시가총액보다 모멘텀을 기반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가운데, 상장일 현재 57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 성장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편입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총 보수는 0.50%가 적용된다.

- TIME 코스닥액티브: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들에 대해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요건을 적용하여 핵심-위성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상대적으로 핵심 섹터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상장일(3/10)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차전지와 바이오 섹터에 집중된 형태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2차전지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삼천당제약,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주요 구성 종목들로 포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고려된 포트폴리오가 되겠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 가능한 액티브 ETF로써, 상장일 현재 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0.7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ETF 종목이다.

도표 1. KoAct 코스닥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Act 코스닥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
상장일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코스닥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정기변경	해당사항 없음	
구성종목 수	1,798종목 (‘26.2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	
총 보수	0.50%	0.80%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2. KoAct 코스닥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의 구성종목 및 비중

KoAct 코스닥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	
구성종목	비중(%)	구성종목	비중(%)
큐리언트	8.89	에코프로	9.76
성호전자	8.74	에코프로비엠	6.89
파두	3.91	삼천당제약	6.27
보로노이	3.77	에이비엘바이오	5.13
레인보우로보틱스	3.44	레인보우로보틱스	5.03
비에이치아이	3.27	알테오젠	3.62
에이치브이엠	3.07	파두	3.06
인텔리안테크	3.00	리노공업	2.51
성우하이텍	2.81	리가켐바이오	2.40
로보티즈	2.79	알지노믹스	2.38
피에스케이홀딩스	2.15	에스티팜	2.21
에이비엘바이오	2.05	한국피아이엠	2.18
펄어비스	2.04	에임드바이오	2.13
에코프로	2.02	리브스메드	2.12
에스피지	1.96	브이엠	2.04
아이티센글로벌	1.94	원익IPS	2.01
삼천당제약	1.91	로보티즈	1.98
솔브레인홀딩스	1.89	아이티센글로벌	1.94
디어유	1.87	씨트렉아이	1.88
이오테크닉스	1.86	이오테크닉스	1.83

자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하나증권

0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026년 3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크레딧

KP: 3월, 시장 기능과 후행 프리미엄을 봐야 할 때

2월: 금리가 끌고 상대적으로 잘 버틴 KP

2월 KP 시장은 금리 하락이 성과를 주도한 달이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회사채 금리도 낮아졌다. 다만, 미국 IG는 금리 하락 여파로 스프레드가 10bp 이상 확대된 반면 아시아 IG는 2.3bp 확대에 그쳤고, KP는 국책/공기업 -4.5bp, 민간기업 -1.1bp로 오히려 타이트닝이 나타났다. 특히 2월 초 외평채는 3년물 가산금리의 역사적 저점을 경신하며 KP 상단의 방어적 수요를 재확인했다. 이는 2월 수급이 펀더멘털 최상위의 KP 상단에 우호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 KP 상단(국책/공기업)과 하단(민간기업)의 성격 차이는 분명하다. KP 상단의 미국 IG와의 일간 스프레드 변동 기준 최근 12개월 롤링 상관계수(0.35) 및 베타(0.24)를 보면 동행 흐름을 보이나, 타 아시아 우량등급(0.56/0.50)이나 국내 민간기업(0.48/0.37)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6개월로 좁혀보면 미국 IG와 국책/공기업 간 상관계수는 0에 수렴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KP 상하단 스프레드 갭은 43bp로 최근 5년 평균을 하회 중이며, 백분위 기준 하위 11%에 머물러 있다. 이는 스트레스 국면 지속 시 상단보다 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 국채 금리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지만, KP 상단이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상대적 방어 자산이 됨을 알 수 있다.

3월: 시장 기능 정상화와 금리 변동성이 관건

3월 이후 시장은 스프레드 자체보다 시장 기능과 금리 변동성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충격 직후 미국 공모 시장에서 예정 딜이 철회되며 발행시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발행시장 중단-재개의 과정에서 NIP가 다시 확대될 압력이 남아 있다. 또한 4월 KP 만기 물량(약 $52억)에 대한 선제 차환이 지연될 경우 발행 수요가 4월 초로 겹치며 NIP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먼저 전쟁 충격을 반영해 스프레드 확대 후 되돌린 반면, 아시아 IG와 KP는 뒤늦게 프리미엄이 재부과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전쟁 이벤트가 미국보다 아시아와 KP에 후행적으로 프라이싱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 IG 스프레드 안정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KP 시장은 방향성 베팅보다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미국 10년물 금리의 안정, ② 발행 재개 후 NIP 정상화, ③ 아시아 IG와 KP의 후행적 프리미엄 재부과 여부, ④ KP 상하단 간 스프레드 갭 재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와 코스닥의 퀀트 전략

실전 퀀트 | 2026.03.11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변동성 속에서 코스피 반도체와 코스닥 퀀트 아이디어

코스피, 외인 매도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

- 최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 국면 이전에도 글로벌 액티브(사모) 자금의 한국대비 대만 편향성 뚜렷
- 한국 반도체는 고마진 HBM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극심한 '범용 메모리' 프레임 및 중국의 가파른 추격 리스크가 주가에 투영, 반면, TSMC는 AI 빅테크의 필수 관문인 '독점적 파운드리' 지위와 재고 리스크 프리 매력이 부각되며 외인의 상대적 선호 지속
- 1) 다만 주가 측면 핵심 팩터인 영업이익률에서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경 TSMC를 추월하며 동시에 주가 아웃퍼폼 시현

  또한 외인 수급의 핵심 동인은 결국 '이익 팩터'이며, 역사적으로 실적 방향성과 외인 순매수의 높은 상관관계 확인

  현재 글로벌 실적 모멘텀 1위인 한국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펀드 포트폴리오 재편 이슈로 인해 일시적 '지연'된 상태로 판단
- 2)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한 외인 매도 반응은 과거 벤치마크 대비 과민한 수준

  2010년 이후 회귀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시 코스피 외인 순매수 -5조원이 적정 수준이나, 3월 들어 환율 5% 상승 대비 외인 매도세(2월 -21조원, 3월 -10조원)는 통계적 범위를 크게 이탈함

  이는 중동 분쟁 등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를 헷지(Hedge)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임. 안전선호 심리 완화 시 매수 전환 탄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3) EWY, KORU 등 미국 상장 ETF가 추종하는 25-50 지수의 비중 제한 논란 존재

  현재 삼성전자(40%)와 SK하이닉스(20%)의 합산 비중은 60%로 5/50 룰(5% 이상 종목 합계 50% 미만)을 상회

  지수 상승 시 기계적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ETF들의 총 설정액(약 25조 원)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반도체 외인 순매도(37조 원) 중 설명 가능한 비중은 1~2조 원에 불과

  또한, 차상위 종목군으로의 유의미한 수급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해당 이슈를 최근 매도세의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4) 오히려 본래 지수대비 반도체 비중이 낮은 MSCI KOREA 25-50 지수 추종 펀드들이 반도체 익스포저를 보완하기 위해 3월 급락장에서도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선물을 순매수한 점에 주목.

  이러한 '현물 매도-선물 매수' 조합은 스프레드 차이를 이용한 금융투자의 차익거래성 반도체 매수 유발

  결론적으로 외국인 현물 매도 주도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수급의 하방 경직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판단

2026년 3월 11일 | 기업분석_Initiation

아이에스동서 (010780)

최소 시총 1.5조원을 기대하는 종목

BUY (신규)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3.10)	28,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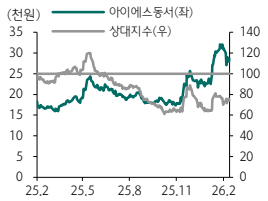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532.59
52주 최고/최저(원)	32,050/15,960
시가총액(십억원)	866.4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0,187.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4.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7
외국인지분율(%)	5.26
주요주주 지분율(%)	
아이에스지주 외 6 인	55.8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136.7	1,392.6
영업이익(십억원)	99.0	150.2
순이익(십억원)	(30.9)	74.3
EPS(원)	(990)	2,416
BPS(원)	43,979	43,75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029.4	1,514.6	1,234.4	1,165.1
영업이익	340.5	169.7	65.8	116.8
세전이익	220.0	(160.2)	(52.9)	17.3
순이익	161.1	(148.7)	(37.6)	12.3
EPS	5,216	(4,910)	(1,246)	407
증감율	(17.65)	적전	적지	흑전
PER	5.55	(4.26)	(18.74)	68.55
PBR	0.57	0.46	0.54	0.66
EV/EBITDA	4.88	8.64	18.50	13.21
ROE	10.90	(10.19)	(2.84)	0.96
BPS	51,082	45,312	43,146	42,568
DPS	1,500	1,000	1,000	1,0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신규 제시

아이에스동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8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5.0배를 적용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콘크리트부문(2025년 매출액의 22%), 건설(36%), 폐기물(29%), 폐배터리(10%)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2022년~2024년까지는 건설업이 전체의 50%를 상회했으나, 건설업황 악화에 따라 매출액 비중이 축소됐다. 하지만 올해 자체 개발 예정인 펜타힐즈W(경산 중산)을 통해 건설 매출액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2028년)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전사 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아이에스동서는 2014년 용호동W, 2019년에 수서범어W 등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과거 사례가 두 차례나 있으며, 이 시기 모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아이에스동서의 주가는 해당 현장들이 본격적으로 이익이 인식될 시점(약 2년 뒤)을 선반영해왔다(도표1). 이번에도 펜타힐즈W를 개발을 통해 2028년 이익 도약이 전망되는바, 과거 두차례 겪었던 밸류의 저점인 PER 5배를 적용해도 상승여력은 60% 이상 존재한다. 2년 뒤 추정치 기준으로 PER 밴드가 5배에서 8배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도표2), 기업가치 고점은 2조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중소형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2028년 영업이익 4,534억원 추정, 펜타힐즈 분양 흥행을 전망

아이에스동서 2028년 매출액 2.2조원(+84.7%yoy), 영업이익 4,534억원(+210.9%yoy)으로 추정한다. 매출액 및 이익의 성장은 대부분 건설, 특히 펜타힐즈W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관건은 4월 예정인 분양에서의 흥행 여부다. 진행률로 실적이 인식되려면, 1차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공사 진행률이 10%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그때까지 판매된 것들만 매출액으로 반영된다. 1차중도금을 27년 3월로 고려하고 있으며, 2027년말까지 공사누적진행률 10%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판매되는 물량까지 진행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 초기 청약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지라도, 27년 3월까지 완판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분양지역 주변 시세는 3.3m^{2}당 1,500만원~1,9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펜타힐즈의 입지,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 2,000만원/3.3m^2 수준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주변 아파트가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 3월로 가게되면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아직 대형 평형의 비중이 높고, 대구에 대한 불신이 분양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 다소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에스동서의 주가 수준은 펜타힐즈W가 완판될 것을 가정한 기업가치를 온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분양 분위기에 따라 상승여력은 크게 존재하기에 매수를 추천한다.

2026년 3월 11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JYP Ent. (035900)

스트레이키즈 Everywhere

BUY (유지)

목표주가(12M)	95,000원
현재주가(3.10)	62,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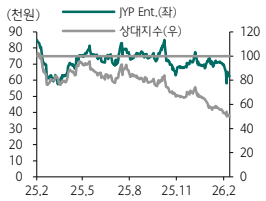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37.68
52주 최고/최저(원)	85,000/57,400
시가총액(십억원)	2,224.3
시가총액비중(%)	0.36
발행주식수(천주)	35,532.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4.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9.9
외국인지분율(%)	14.05
주요주주 지분율(%)	
박진영 외 3 인	15.9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788.7	830.7
영업이익(십억원)	148.7	169.7
순이익(십억원)	152.0	132.2
EPS(원)	4,550	3,702
BPS(원)	18,810	22,11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566.5	601.8	821.9	870.0
영업이익	169.4	128.3	155.2	176.9
세전이익	155.7	136.2	223.4	183.8
순이익	105.5	97.8	161.4	134.8
EPS	2,971	2,751	4,541	3,795
증감율	56.29	(7.40)	65.07	(16.43)
PER	34.10	25.41	15.99	16.50
PBR	8.86	5.06	4.07	3.01
EV/EBITDA	18.56	15.96	11.34	9.58
ROE	30.37	22.41	29.34	20.00
BPS	11,435	13,811	17,833	20,793
DPS	574	534	877	71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예상 P/E 17배로 저평가 구간

스트레이키즈의 높은 서구권 팬덤으로 앨범/콘서트/MD 등 전 부문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상반기 트와이스, 하반기 스트레이키즈의 역대급 활동에 더해 엔믹스와 중국(ADL1 등) 등이 기여하면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센티먼트 이슈로 주가는 부진하나 2026년 예상 P/E 17배에 거래되는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

4Q Review: OP 419억원(+14% YoY)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326억원(+17% YoY)/419억원(+14%)으로 컨센서스(352억원)를 상회했다. 스트레이키즈/엔믹스 등의 컴백 등으로 앨범은 약 470만장 판매되며 828억원(+54%)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스트레이키즈의 유럽 등 서구권 팬덤이 이번 월드투어를 통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현지 ASP가 국내 대비 상당히 높을 뿐더러 환율 효과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유럽 매출 확대로 기존 음원으로만 분류했던 것을 음반/음원으로 재분류(약 90억원) 한 효과까지 더해졌다. 콘서트는 트와이스 아시아 투어 14회와 스트레이키즈 인천 스타디움 앵콜 등 약 70만명이 반영되었으며, 스트레이키즈의 월드투어 RS가 추가 반영되면서 긍정적이었다. MD 역시 공연 및 팬미팅, 중국 팝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되면서 489억원(+12%)을 기록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1,769억원(+14% YoY)

2026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1,769억원, +14%)을 전망한다. 트와이스는 360도 개방 월드투어를 진행중인데 올해에만 북미/유럽 46회 포함 52회가 반영된다. 스트레이키즈는 하반기 앨범과 투어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세계 주요 도시 내 SKZOO 캐릭터의 글로벌 팝업을 4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엔믹스도 첫 월드 투어를 시작했으며, 니쥬는 6월 4회의 일본 돔 투어를 발표하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미국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MD 및 라이센싱을 확대하고 중국에서는 텐센트/CJ ENM과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토리 개별 멤버(ADL1 등) 등의 활동 등이 확대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 기업분석_Comment

엔씨소프트 (036570)

JustPlay 인수, 하반기 캐주얼 추가 딜 기대

BUY (유지)

목표주가(12M)	320,000원
현재주가(3.10)	21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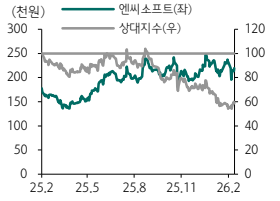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532.59
52주 최고/최저(원)	247,500/135,800
시가총액(십억원)	4,728.9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21,544.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9.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4.7
외국인지분율(%)	35.33
주요주주 지분율(%)	
김택진 외 14 인	12.37
Saudi Electronic Gaming Holding Company 외 1 인	9.4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530.8	2,089.7
영업이익(십억원)	23.6	364.6
순이익(십억원)	362.7	335.4
EPS(원)	16,693	15,511
BPS(원)	175,120	189,46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79.8	1,578.1	1,506.9	2,158.8
영업이익	137.3	(109.2)	16.1	400.5
세전이익	206.2	120.9	461.4	455.5
순이익	212.1	94.2	346.7	363.7
EPS	9,663	4,291	16,022	16,883
증감률	(51.31)	(55.59)	273.39	5.37
PER	24.89	42.67	12.58	13.00
PBR	1.37	1.04	1.06	1.07
EV/EBITDA	15.30(76,196.8)		25.01	5.34
ROE	6.58	2.99	10.70	10.13
BPS	176,065	175,362	189,628	205,476
DPS	3,130	1,460	1,150	6,00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JustPlay 인수 발표

엔씨소프트는 3월 10일 JustPlay GmbH의 지분 70% 인수를 발표했다. 해당 게임사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개발 및 리워드 앱 사업을 영위하며 주요 게임은 JustPlay다. 취득금액은 3,016억원(기업가치 4,309억원)이며 남은 지분 30%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보유한다. JustPlay의 2025년 매출액은 2,480억원(+39.0%YoY), 당기순이익은 227억원(+41.0%YoY)다. 2025년 EPS 기준 PER 19배라는 밸류에이션은 최근 높은 성장성과 AdTech 역량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 JustPlay의 매출은 광고에서 발생하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유저에게 일부 분배하여 유입과 리텐션을 일으킨다. 사용자는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하고 로열티 코인을 얻어 이를 달러로 보상받는다. 이때 로열티 코인의 가치는 유저가 시청한 광고의 수/단가, 게임 플레이 시간과 업적에 따라 변동한다. 캐주얼 게임 개발, AdTech 역량을 모두 바탕으로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2020년 출시 이후 35개 이상의 게임이 탑재되어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 2025년 4월 2,500만회+, DAU 50만명+을 달성했다.

인수 영향과 향후 전망

이번 인수로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캐주얼 라인업과 AdTech 역량을 내재화했다. 매출, 당기순이익이 고성장 하고 있기에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이다. JustPlay의 최근 성장세(2024년 +56.5%YoY, 2025년 +39.0%YoY)를 감안하여 올해 매출액을 3,1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면 4월 30일 인수 완료 이후 2026년 매출은 약 2,060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20% 내외 추정, 약 400억원으로 예상한다. 다만 인수로 인해 PPA 상각 발생 예상하며 이를 반영하여 추정치 변경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하고 아넬 체만 전무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캐주얼 분야에 진출했다. 지난 12월에는 베트남 소재 리후후와 국내 스프링컴즈를 인수하며 라인업을 갖췄다. 또한 슬로베니아 스튜디오를 인수하여 PoC를 진행했다. 이번 JustPlay 인수로 갖춘 AdTech로 기존에 없었던 캐주얼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에 대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엔씨소프트는 4분기 실적발표에서 2026년 매출액 가이던스 2조원~2.5조원 상단 달성, 2027년 캐주얼 장르 매출 비중 1/3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딜은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유럽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 M&A건으로 보인다. 당사의 기존 엔씨소프트 2026년 예상 매출액 2조 1,588억원에 최근 인수들을 반영해도 가이던스 상단에 미치지 못하며, 2027년 캐주얼 매출 비중 1/3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아직 매출액이 부족하다. 이번 인수로 엔씨소프트의 이익 성장 가시성은 더욱 높아졌다. [리니지 클래식], [아이온2]는 순항 중이다. 매수 접근 추천한다.

2026년 3월 11일 | 산업분석_Industry

2차전지

유럽 IAA(산업가속화법)의 함의와 한국 수혜 강도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10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 TP 518,000원 | CP 367,000원

삼성SDI(006400)
BUY | TP 469,000원 | CP 403,5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
Not Rated I CP 44,700원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유럽 내 공급망 구축 및 탈탄소 산업 육성안 담은 IAA 초안

3월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IAA(산업가속화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공공 재정을 활용해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철강,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에너지 多소비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EU는 해당 법안을 통해 GDP 내 제조업 비중을 2024년 14.3%에서 2035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다. 1) 전략 산업의 경우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보조금·융자·세제 등)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Made in EU'(EU 또는 EU가 인정하는 국가를 원산으로 하는 부품·소재의 최소 비율 충족) 또는 '저탄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의 정확한 비율과 세부 계산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배터리 제외, 배터리는 별도 조항 신설)의 경우 최소 7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로컬 콘텐츠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2)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요건을 강화한다. 제3국이 전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그 국가 기반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때 여러 조건(고용·로컬 콘텐츠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지분/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JV 포함)하고, 현지 R&D·핵심 공정·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기업이 모든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탈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 중간 단계에서 '묵시적 승인 원칙(tacit approval)'을 도입해, 진척 속도를 높인다. 4) 산업 가속화 구역(Industrial Acceleration Areas)을 지정해, '청정 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유럽 현지 투자 요건 강화

유럽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현지 생산기지 확대로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 신규 투자 역시 중국계 자본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U가 IAA 제정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비유럽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FDI 요건에서 "제3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는 기준은 글로벌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견제 장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EU는 IAA 도입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IAA는 글로벌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한 국가의 해외 기업이 EU에 진출(투자)할 경우, 강화된 FDI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사 체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 투자 이후에도 EU 기업이 지배력을 유지하는지, 2) 현지 프로젝트가 전체 인력의 최소 50%를 EU 거주자로 채용하는지, 3) 로컬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4) EU 역내에 R&D 센터와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지, 5) 핵심 기술 일부를 현지 법인과 공유 및 이전하는지 등을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배터리 셀, 양극재, BMS의 역내 생산 강조

한편, 이번 초안은 전기차·배터리 관련 로컬콘텐츠 요건을 세 갈래로 명확히 분리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EV용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에 대해 별도의 로컬콘텐츠 기준을 두고, EV용 배터리는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개별 조항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EV/EV용 배터리/ESS용 배터리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각각 로컬콘텐츠 요건을 설정했다. 3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차(BEV, PHEV, FCV) : 차량은 EU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동시에,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의 공장도가(工場渡價, 제품이 생산된 공장에서 출하될 때의 가격)를 기준으로 EU산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2) EV용 배터리 : 법령 시행 즉시 배터리 핵심 구성요소 중 셀을 포함한 최소 3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셀·양극재(CAM)·BMS를 포함한 최소 5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IRA처럼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의 개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또한, 어떤 부품을 배터리의 주요 구성요소로 볼지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178 Annex에 열거된 main specific components 리스트를 따른다. 해당 리스트에는 배터리 셀·모듈·팩, 양극/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집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이 포함됐다. 3) ESS용 배터리 : 법안 시행 1년 후부터 공공기관이 BESS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배터리 자체가 EU산이어야 한다. 또한 1MWh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BMS 역시 EU산이어야 하며, 기준은 입찰·공고 시점을 따른다.

IRA와의 차이 : 당근보다 채찍

IAA는 미국의 IRA와 정책 목표는 유사하지만 정책 수단과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두 제도 모두 공공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의 로컬콘텐츠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IRA가 현지 생산·조달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생산량(kWh·톤 등)에 연동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라면, IAA는 EU 내 R&D 센터 설립과 현지 법인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며 기술의 역내 축적을 유도하는 보다 '강한 규제' 성격을 띤다. 즉, IRA가 현지 생산 확대를 유인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다면, IAA는 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부 정책에 가깝다.

한국 배터리 기업 수혜 전망

향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규정의 수위나 시행 시점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능력(CAPA)을 보유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미 유럽 현지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역내 생산·고용·기술을 기반으로 'Made in EU' 요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EU와 포괄적 FTA를 체결한 주요 파트너로, 로컬 콘텐츠 판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또는 완화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유럽 현지화 전략이 미흡한 국내 업체의 경우 향후 로컬 콘텐츠 규칙과 FDI 조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IAA 시행 3년 이후부터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요 구성요소 중 최소 5개(셀·양극재·BMS 포함)를 EU산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중 현지 생산 거점 보유한 기업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셀 메이커 3사는 모두 유럽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서 약 80GWh 수준의 CAPA를 기반으로 ESS 전환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증설을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헝가리에서 약 40GWh 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물량(LFP·Mid-Ni·46파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SK온 역시 헝가리에 약 48GWh 규모의 CAPA를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게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CAPA는 약 1만 톤 수준으로, 향후 단계적인 증설이 예상된다. 이처럼 유럽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관련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미국

2026년 3월 11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건설

7년 매각 조항을 포함한 상원 주택법안

주택법안 추가 조항 포함

다음 주 중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대형 기관이 취득한 임대용 단독주택을 7년 이내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7년 매각 조항)'이 포함되었다. 단독주택 350호 이상을 보유한 법인과 펀드가 '대형 투자자'로 정의됨에 따라, 이들이 추가로 취득하는 Build-To-Rent 등 임대용 단독주택에 대해 사실상 7년짜리 만기가 설정된 셈이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가구의 자금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수 물건이 제3 매수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임대용 단독주택을 장기투자자산이 아닌 7년 만기 유동화 상품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하원은 이미 비슷한 주택법안(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규제는 포함하지 않아 양원 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여전한 반감

이러한 조항이 표결 전 추가된 배경에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치적 차원에서 월가의 단독주택 매수 확대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투자자 규제는 양당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온 전례로 보아 특정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는 정책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가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형 기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를 주거비 완화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의회 차원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정책 설계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장벽을 완화하는 일은 정치적 저항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편이다. 반면, 기관 투자자를 규제하는 것은 비교적 저항이 낮고, 단기적으로도 기관 매입을 억제하여 실수요자 매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건설업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

이미 금리 부담으로 센티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항은 건설업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NVH, AMH 등 BTR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 임대 리츠는 추가 매입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관련 수주를 기대하던 홈빌더의 파이프라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DHI, LEN 등 공공 프로그램 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BTR 의존도가 낮은 업체일수록 이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상원안과 하원안의 통합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최종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 규제와 예외 규정의 강도에 따라 전체 공급과 가격,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3/9	129,700	128,700	-0.77%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키움증권 (039490.KS)	3/9	435,500	415,000	-4.71%	•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M/S 반등 가능성 높아 • 3월 중 2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예정되어 있어 배당 확대 기대감 유효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6,600	4.50%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한화솔루션 (009830.KS)	3/9	51,800	50,500	-2.51%	• 미국 태양광 모듈 ASP 상승과 IRA 기반 AMPC 효과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 본격화 • 2027년 추정치에 중국업체 Valuation 적용 시 목표 시총 11조원 가능
에코프로비엠 (247540.KQ)	3/9	202,500	202,500	0.00%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및 인터배터리 2026 기대감
알지노믹스 (476830.KQ)	3/9	164,200	170,300	3.71%	• RNA 기반 유전자치료 플랫폼을 바탕으로 희귀질환·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 • 기존 DNA 교정 대비 정밀도·안전성 차별화를 통해 기술이전(L/O) 가능성 부각
씨엠티엑스 (388210.KQ)	3/9	150,200	136,000	-9.45%	•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Si Parts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 NAND 뿐만 아니라 TSMC를 통해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납품 중
덕산하이메탈 (077360.KQ)	3/9	11,850	10,900	-8.02%	• 반도체, FCBGA 수요 증가에 따른 패키징 소재 증가 • 저수익성 Paste 제품을 상대적 고수익성 제품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75%	+2.22%p	+50.79%	+26.1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9	98,000	96,200	-1.84%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3/9	353,500	336,000	-4.95%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6,600	4.50%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3/9	105,100	96,100	-8.56%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RF머트리얼즈 (327260.KQ)	3/9	51,900	46,800	-9.83%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42,600	-4.49%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15,000	2.47%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3,400	15.17%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73,500	44.7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836,000	28.42%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74,100	52.19%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28,700	55.06%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4.85%	+0.15%p	+24.85%	+0.1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7,625	-6.5%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455	-11.2%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700	-2.6%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1,325	64.0%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1.98	-1.1%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32	23.4%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4.37	16.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4.77	13.4%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8	3.9	3.10	3.11	3.12	3.13	3.14
	▪ 일본 1월 BOP 경상수지 (E --, 12월 ¥728.8b) ▪ 중국 2월 전년대비 CPI (E --, 1월 -1.4%)	▪ 한국 4분기 전기대비/전년동기대비 GDP 발표 (E --/--, 3분기-0.3%/1.50%)	▪ 미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4%/0.2%)	▪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E --, 2월 56.6)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미국 2월 전월대비 광공업 생산 (E 0.3%, 1월 0.7%)	▪ 일본 1월 전월대비 3차 산업지수 (E --, 12월 -0.5%)	▪ 미국 FOMC 금리결정 (E 3.50~3.75%, 이전치 3.50~3.75%) ▪ 유로권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최종) (E --/--, 1월 1.9%/0.7%) ▪ 한국 2월 실업률(계절조정) (E --, 1월 3.0%)	▪ 일본 BOJ 금리결정 (E --, 이전치 0.75%) ▪ 유로존 ECB 금리결정 단기수신금리/기준금리/한계대출금리 (E --/--/--, 이전치 2.00%/2.15%/2.40%) ▪ 미국 3월 2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